



무등경기장 뒤 '서석대 폭포'... 초복(初伏)인 15일, 광주천과 서방천이 만나...

태풍 속 해수욕장 3명 사망·실종

고흥·신안·완도 등 해수욕장 통제 안내 사고 잇따라

소방방재청, 지자체 과실 여부 감사 의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안전불감증'이 피서객들의 목숨을 높이는 파도에 내쳤다.

제4호 태풍 '마니'(MAN-YI)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난 14일, 전남 서·남해상에 태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지만, 해수욕장의 통제...

일 새벽 4시 남해서부 앞바다 일대에 태풍주의보를 발효했고, 오후 4시에는 풍랑주의보(파고 3m 이상, 초속 14m 이상 강풍 예상)를 내렸다.

제4호 태풍 '마니'(MAN-YI)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난 14일, 전남 서·남해상에 태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지만, 해수욕장의 통제...

하지만 목포시는 14일 오후 2시 외달도 해수욕장 개장식을 가졌다. 하루 전인 13일엔 해남 사구미와 송평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다.

소방방재청은 태풍주의보 속 전남 지역에서 역사사고가 잇따르자 도내 48개 해수욕장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따져 과실이 드러

날 경우 감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물에 빠진 '재난 정보'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에는 태풍과 관련된 소식이나 해수욕장 폐쇄에 따른 안내가 없었다.

영광군은 안내전화가 가장점으로 연결됐으며, 보성·장흥·장성군은 홈페이지에 실린 재난상황실 번호가 틀린 채 방치되고 있었다.

○완도군 군의 면 흑일도 감양식장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물레 섬을 빠져나오려다 표류 중 구조된 50대가 거짓말을 했다.

○사고 잇따라=지난 14일 오후 4시26분께 고흥군 영남면 남일 해수욕장에서 학교 친구들과 수영을 하던 순천 P고 1년 조모(17)·김모(17)군 등 2명이 3~4m의 높은 파도에 휩쓸려 조준이 숨지고 김군은 실종됐다.

○완도군 군의 면 흑일도 감양식장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물레 섬을 빠져나오려다 표류 중 구조된 50대가 거짓말을 했다.

○완도군 군의 면 흑일도 감양식장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물레 섬을 빠져나오려다 표류 중 구조된 50대가 거짓말을 했다.

○완도군 군의 면 흑일도 감양식장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물레 섬을 빠져나오려다 표류 중 구조된 50대가 거짓말을 했다.

○완도군 군의 면 흑일도 감양식장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물레 섬을 빠져나오려다 표류 중 구조된 50대가 거짓말을 했다.

○완도군 군의 면 흑일도 감양식장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물레 섬을 빠져나오려다 표류 중 구조된 50대가 거짓말을 했다.

○완도군 군의 면 흑일도 감양식장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물레 섬을 빠져나오려다 표류 중 구조된 50대가 거짓말을 했다.

○완도군 군의 면 흑일도 감양식장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물레 섬을 빠져나오려다 표류 중 구조된 50대가 거짓말을 했다.

○완도군 군의 면 흑일도 감양식장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물레 섬을 빠져나오려다 표류 중 구조된 50대가 거짓말을 했다.

○완도군 군의 면 흑일도 감양식장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물레 섬을 빠져나오려다 표류 중 구조된 50대가 거짓말을 했다.

○완도군 군의 면 흑일도 감양식장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물레 섬을 빠져나오려다 표류 중 구조된 50대가 거짓말을 했다.

○완도군 군의 면 흑일도 감양식장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물레 섬을 빠져나오려다 표류 중 구조된 50대가 거짓말을 했다.

○완도군 군의 면 흑일도 감양식장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물레 섬을 빠져나오려다 표류 중 구조된 50대가 거짓말을 했다.

○완도군 군의 면 흑일도 감양식장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물레 섬을 빠져나오려다 표류 중 구조된 50대가 거짓말을 했다.

○완도군 군의 면 흑일도 감양식장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물레 섬을 빠져나오려다 표류 중 구조된 50대가 거짓말을 했다.

○완도군 군의 면 흑일도 감양식장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물레 섬을 빠져나오려다 표류 중 구조된 50대가 거짓말을 했다.

○완도군 군의 면 흑일도 감양식장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물레 섬을 빠져나오려다 표류 중 구조된 50대가 거짓말을 했다.

○완도군 군의 면 흑일도 감양식장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물레 섬을 빠져나오려다 표류 중 구조된 50대가 거짓말을 했다.

○완도군 군의 면 흑일도 감양식장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물레 섬을 빠져나오려다 표류 중 구조된 50대가 거짓말을 했다.

○완도군 군의 면 흑일도 감양식장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물레 섬을 빠져나오려다 표류 중 구조된 50대가 거짓말을 했다.

전남경찰청 농축산물 절도 분석해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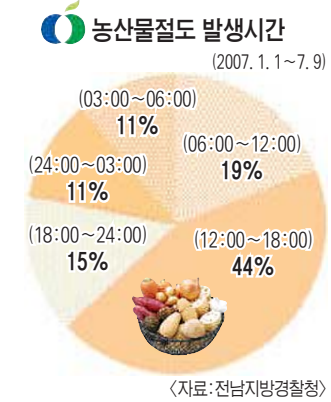
"7·8월엔 개도독 조심"

전담수사팀 발족

'5·6월 마늘과 양파, 7·8월 수박과 개, 10·11월 배' 최근 3년간 농도(農道) 전남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농·축산물 절도범들의 월별 주요 범죄 대상이다.

수확기를 맞는 농작물이 주로 범행 '타깃'(target)이 되고 있다. 농산물 절도는 도로변에서 건조하거나 밭 주변에 야적을 해놓는 낮 12시~오후 6시가 가장 많았고, 축산물의 경우 인적이 드문 자정~새벽 3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남청은 16일부터 각 경찰서에 '농·축산물 절도 특별수사팀'(AST)을 구성·운영한다. 목포·여수·순천 등 1급지 경찰서는 기



존 '절도 특별수사팀'(TSD)이 맡고 군(郡) 단위 2급지 경찰서는 형사 실정에 맞게 최소 2~3명 이상의 현사로 팀을 구성하게 된다. 'AST'는 상·연세 범죄와 차이를 이용한 대규모 절도사건 등을 전담하고, 농·축산물 시장과 우(牛)시장 등 출현 농·축산물 처분 예상장소를 사전 파악해 유통경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또 ▲범죄예방 다발지역에 임시경문소 설치 ▲농동태차 등 화물차 검문검색 강화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등 대책도 마련했다.

'학력위조' 캐나다 강사 징역 6개월

범원 "외국어 강사 자질 교사 만큼 중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한양석 부장판사는 교육학 학사 학위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행사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로 구속기소된 영어 학원 강사 J씨(30·캐나다)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어 교육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강사의 자질은 공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요구치 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정당한 자격이 없는데도 관련서류를 위조해 취업 등에 이용한 것은 국내 사교육 현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로 엄벌에 처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J씨는 2003년 초 영어회화 강사용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려다 정규 대학 과정을 이수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 비자 발급을 거절당하자 캐나다의 모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교육학 학사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했다.

지난 14일 오전 7시25분께 고흥군 도암읍 봉암리 동두대 공원에서 한모(30·광주시 서구 상동동)씨가 목을 매 죽었다. 전남 D대학 ROTC인 한씨는 2년 전 중위로 전역한 뒤 취업을 못해 고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다들 즐겨찾는 신발재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세대에 대학원
KCC광도 시스템형도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신발재...
실리콘 방수제 합작제 타이브

범행 현장 다시 찾은 뺑소니범

119 구급 장면 지켜보다 '덜미'

범인은 범행 현장을 다시 찾는다. 이는 많은 정황이다. 술에 취해 트럭을 몰던 무면허 운전자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뺑소니를 친 뒤 사고 수습 광경을 번갈아치면서 보다가 덜미를 잡혔다.

차에 싣고 가는 모습을 몰래 지켜 봤다. 하지만 국씨는 사고 당시 트럭 번호(87여6XXX)를 기억한 행인들이 출동한 경찰에게 "저 트럭이 사람을 치고 도망쳤다"고 신고하는 바람에 붙잡혔다.

국씨는 지난 2004년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후 달아났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광주 서부경찰은 15일 국씨를 특가범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하나투어 1등 여행사 '고객님'은 '주인님'입니다

코스닥상장 30대 우량기업 | 9년 연속 해외여행 판매 1위 |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광주에서 바로가는 여름휴가!

마닐라/박정현/4/5일	하쿠리/4/5일	장사/장가/월가/천문산 5/5일	심양/백두산/고구려유적지 5/5일
899,000~949,000	590,000~690,000	599,000~739,000	779,000~879,000
미달라/보라카이 4/5일	하쿠리/5/5일	장사/장가/월가/천문산 4/5일	심양/백두산/북경 5/5일
999,000~1,049,000	790,000~	549,000~649,000	839,000~939,000
미달라/세부 (마닐라/상투라/홀리데이) 4/5일	하쿠리/5/5일	장사-골프(54홀) 4/5일	심양/백두산 6/6일
1,349,000~	1,050,000~	장사-골프(72홀) 4/5일	899,000~799,000
		목포/포항/이제/기타지역/장사/백	699,000~899,000
			829,000~929,000
			목포/포항/이제/기타지역/장사/백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법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